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2

서구·의성 지역 농협,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대구 서구·경북 의성 지역 농협은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을 상대 지역에 교차 전달하며 상생 발전을 기원했다. 의성 다인농협은 9월 23일 열린 기탁식에

서 임직원 51명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금 500만 원을 대구 서구청에 전달했다. 이번 상호교차 기부는 자매결연도시 지역농협 간의 협력을 실천함은 물론 시행 2년 차를 맞는 고향

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탁식에는 류한국 서구청장, 이청훈 농협대구지역본부장을 비롯하여 류영효 서대구농협 조합장, 송강수 의성 다인농협 조합장 등이 함께했다. 박재성 기자



지속가능 순환경제 우수 모델...지역사회 적용 논의

외국 우수 사례 주제 발표 순환경제 주제 질의·응답 전문가 등 50여명 참석해

대구 수성구는 23일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지속가능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수미

창조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촉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자원순환 전문가, 구의원, 유관단체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30인의 전문가가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방향을 제시하고 참석

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포문을 열었다. 홍 소장은 '법 개정사항과 제도적 시사점에 관한 논의: 독일의 판트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사항'을 주제로 발제해 우리나라 보증금 제도 등에 대한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다음으로 이보현 ㈜엔유비즈 대표이사가 '자원순환 플랫폼 개발 사례'를 주제로 타 지자체 플랫폼 개발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미래기술 발달에 따른 앱 사용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은 '국내외 국가 자원순환 정책과 지역별 자원순환 제도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며 예방 중

심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오늘 포럼이 단편적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이고 독창적인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사회의 가치적 활동 체계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구 구직자들 지원 26일 일자리 행사

면접 통해 10명 채용 예정



대구 동구청은 오는 26일, 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동구 구직자들을 위한 '일(job) 구하는 동구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3, 5, 7월에 이어 4번째 개최

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장으로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취청심자, 취신세계환경, 성덕실버타운 등 3개 구인업체가 참여하며, 현장 면접으로 참고관 리원, 배송납품원, 소독원, 요양보호사 등 1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구청 누리집(dong.daegu.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기업과 구직자가 다 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도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만남에서 결혼...가족의 소중한 가치 확산"

달서구 결혼특구 선포 6주년 두류공원에서 28일 페스티벌

대구 달서구가 결혼특구 선포 6주년을 맞아 이달 28일 13시부터 18시까지 두류공원에서 '잘 만나보세' 뉴(NEW)세마을운동 확산으로 가족의 소중한 가치제로 결혼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두근두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결혼특구 6주년을 맞아 '달서(愛) 반다. 달서에♥서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이달 28일 두류공원 2.28자유광장에서 진행된다. 축제는 청년을 응원하고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달서구는 축제를 청년과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부스 운영으로 결혼공감대를 조성하고 청년 주도의 트렌드에 맞는 이색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게 기획했다. 올해는 '잘 만나보세, 뉴(NEW)세마을 운동'을 확산해 전 연령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고자 지역대표 공영인 두류공원 2.28 자유광장에서 개최된다. 대구 시민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체류 홍보존으로 만남·결혼존, 출산·돌봄존, 달서·꿈존이 있다. 청년응원존으로 MZ존과 잘 만나보세존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달달한 사연, 프리포즈 사연 등을 신청받아 진행되는 보이는 라디오, 결혼 스토리텔링 두근두근 매직별문쇼, 두근두근 토크, 심쿵 경품이벤트, SNS인증샷 공유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로 운영

할 계획이다. 관내 14개동(洞)에서는 각급 단체와 연대하여 결혼을 주제로 한 이색적인 퍼레이드도 준비하고 있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빛내줄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사랑 가득한 축제의 장을 통하여 청년과 전 세대가 함께 즐기시기 바라며, 만남에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앞으로도 더욱 확산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남구, 체납안내 카카오톡으로 전달

우편비용 절감 효과 기대

대구 남구는 이달부터 체납된 지방세를 빠르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카카오톡 체납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남구는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을 통해 체납액을 안내하고, 메시지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을 거치면 위택스, ARS, 카카

오페이,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카카오톡 체납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이 고지서 제작 및 우편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고지서 수령이 어려운 해외체류자,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납세자, 외국인 등에 대한 고지서 송달 문제점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평가회 개최

달성군은 지난 24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중간평가회를 개최하였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이 원하

는 재화와 서비스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달성군은 전국 8개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어 2024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하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로 의수·의족을 구매한 지체 장애인 A씨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금액이 부담스러운 의수와 의족을 구매할 수 있었다"며, "장애인인 내가,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전국 8개 지역에서 더 나아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조여은 기자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도전하는 청년

활기찬 노후

꿈을 키우는 아이

행복한 가정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DAEJU 대구광역시

경로당 162곳 맞춤형 소파 설치

경주시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경로당 162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불박이 소파를 설치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사업비 5억 8500만원(시설비 1억 8500

만원, 민간자본보조 4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그동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좌식 생활로 인해 무릎과 척추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는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으로 경로당 28곳에 불박이 소파를 설치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불박이 소파 설치된 경로당 이용 어르신 160여명의 만족도를 조사해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황오동 골목상권 살린다”... 황촌 상권활력소 문 열어

1·2층 공공상생점포 4곳 입점
3층 상인교육실·쉼터 마련
지속성 있는 점포 참여 예정

경주 황오동 원도심에 골목상권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시설이 들어섰다. 시는 24일 경주역 동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

환으로 추진된 황촌상권활력소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주낙영 시장, 이동협 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그간 철도로 인한 단절,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쇠퇴하는 주거지역에 특화 콘텐츠를 활용해 상권 활성화와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 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이달까지 총 21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 연면적 488㎡, 지상 3층 규모로 황촌상권활력소를 건립했다. 상권활력소 1·2층은 공공상생점포 4호가 들어오고, 3층은 상인교육실, 리빙랩, 상인 쉼터가 마련된다. 공공상생점포는 주민, 청년 창업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입주 수요 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성 있는 콘텐츠를 가진 점포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상인교육장과 리빙랩에서는 지역 대학 벤처 창업센터, 창업 동아리와 정기적인 워크숍으로 상인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창업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까지 총 1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주역 동편 일원에 상권활력소, 마을활력소, 마을부엌/카페, 게스트하우스, 나들이길 등 다양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철도로 단절된 황촌 지역 상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시설인 황촌상권활력소는 지역 상권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발돋움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2회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열린다”

국악·소리 한마당·지역 단체 공연
불국사·동국대 WISE캠퍼스 후원



세계 최고의 종소리를 자랑하는 성덕대왕신종의 가치를 되새기는 제12회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경주 첨성대 일원에서 개최된다.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불국사와 동국대 WISE캠퍼스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현존하는 세계의 종 가운데 최고의 소리와 아름다운 모양을 갖춘 ‘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의 가치와 정신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매년 가을,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는 ‘에밀레전은 에밀레종 소리, 세계와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시·체험·공연을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를 축하하는 장으로 꾸며진다.

청소년댄스페스티벌, 에밀레 국악·소리 한마당, 지역 문화예술단체 공연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사흘간 펼쳐진다. 에밀레종 모형종타종과 사물치기 등 에밀레전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체험뿐 아니라 에밀레설화영상관, 도자기 물레 체험, 신라 복입어보기, 금관만들기 등 2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된다. 행사 첫날 오후 5시에 열리는 에밀레전 개막식에서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동협 시의회 의장, 불국사 주지 종천스님, BBS대구불교방송 사장 영송스님, 류완하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총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에밀레전 개막을 축하하고,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를 경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어 박서진, 홍순지, 경성구락부 등이 국악과 가요, 댄스가 어우러진 에밀레 축하공연을 선보인다. 행사 둘째 날인 28일 오후 5시부터는 미스트롯 이수연, 경주 신라고취대, 국악관현악단이 ‘에밀레 국악한마당’을 펼친다.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에밀레 소리 한마당에는 ‘뉴진스’로 활동하는 개그맨 윤성호가 무대에 올라 신나는 DJ파티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성덕대왕신종은 우리나라를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종소리를 자랑한다”라며 “이번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이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를 축하하면서, 세계 속의 경주로 거듭나는데 힘을 모으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에밀레전 개막식과 음악회 등 주요 공연은 BBS TV와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으로 녹화 중계된다.

경주시보건소 방송댄스 교실 운영
경주시보건소가 11월 20일까지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활기찬 삶을 위한 방송댄스 교실을 운영한다. 방송댄스 교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변화를 겪는 만 50세 이상 20명이 참여하며, 9주 동안

매주 월·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50세 이상 여성들은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하면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정체성 혼란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윤용찬 기자/사진=경주시 제공



황남동 120호분 조사연구 중간 결과 공유

발굴조사·출토유물 성과 보고회
각 4개씩 모두 8개 주제 발표

경주시가 금동관을 비롯한 장신구와 순장자의 치아 출토로 주목받은 ‘경주 황남동 120호분’의 조사연구 중간 결과를 공유한다.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그간 진행된 발굴조사 및 출토유물의 보존처리 등에 대한 중간성과 보고회가 개최된다. 이번 보고회는 오전·오후 각 4개씩 모두 8개의 주제 발표로 구성된다. 먼저 오전에는 황남동 120호분의 조사성과 및 금동관·금동신발의 보존처리 경과에 대한 발표에 이어, 봉토 및 석재 분석, 출토 목재 분석 순으로 진행된다. 발표가 끝나면 한국고고학회 회장인 경북대 이성주 교수와 국립경주박물관 김대환 학예연

구사의 진행으로 짧은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오후에는 순장자(15세 전후)와 피장자(3세 전후)의 치아에 대한 분석과 각종 장신구의 기종별 특징과 그 의미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상감유리구슬가슴장사팔찌곡옥 등 각종 유리유물의 특징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와 출토유물 분석 등에 대해 보고가 열린다. 발표 후에는 한빛문화재연구원 김용성 단장과 국가유산진흥원 김재열 연구원의 진행으로 질의응답 및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발표와 토론이 모두 끝나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강봉원 위원장과 이성주 교수·김용성 단장의 총평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는 15세 전후의 여성 피장자와 3세 순장자의 치아 분석 내용과 무덤의 주검간 피장자 아래에서 대나무가 발견된 점 등이 주목된다. 통상 돌무지덧널무덤에서는 나무곽 안에 시신을 넣은 나무관을 안치했지만, 이번 분석에

서 아래에서부터 밤나무-대나무-유기물층(120-2호분), 졸참나무-대나무-유기물층(120호분)이 순서대로 확인됐다. 향후 신라 장제(葬制)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매장주체부와 호석에 사용된 석재는 덕동호 상류의 시부거리마을-하류지역에 이르는 북천에서 공급됐다. 봉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모래는 경주 일대 여러 화학성분의 화학양질 풍화토(산모래)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신라왕경사업의 성과를 시민 및 학계 연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해, 관련 조사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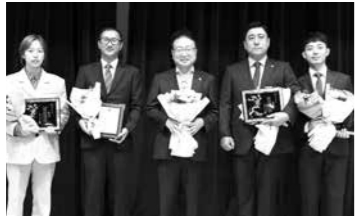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포항 영천
영덕 청송
영양 울진
울릉



영천 빵 나눔봉사단 기부

사랑의 빵 나눔봉사단은 지난 23일 완산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랑의 빵 300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 받은 빵은 회원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과 사랑을 담아 직접 만들었으며,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한다. 백순해 단장은 "회원들이 정성으로 구워낸 빵이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근택 완산동장은 "나눔을 실천해주신 사랑의 빵 나눔봉사단 단장님과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잘 전달돼, 앞으로도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은하 기자



울진군 청년의 날 기념식

울진군은 지난 21일 제2회 울진군 청년의 날 기념행사와 더불어 울진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자 '청년주도 한마음 어울마당'을 울진군청년연합회와 청년정책협의체 주관으로 개최했다.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며, 울진군도 청년문제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행사는 청년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식을 시작으로, 손병복 울진군수, 박형수 국회의원, 김재준 도의원, 김경희 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청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정수 기자

포항, 농촌지도자 연찬회

포항시는 지난 23일 티파니 웨딩에서 한국농촌지도자 경상북도연합회 대의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농촌지도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촌지도자의 리더십을 주제로 이상기후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최신 농업 기술을 적용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포항종합운동장에서 전국 1만 5000여 명의 농촌지도자 회원이 참가하는 한국농촌지도자 전국대회 행사운영 상황을 소개했다. 이강덕 시장은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이번 연찬회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형 디지털산업 혁신 모델 구축 노력”

포항서 스마트 제조 포럼 개최
스마트 제조 시스템 도입 소개
인간 중심의 스마트 제조 특장



포항시는 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가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에서 스마트 제조 포럼을 개최 한다.

포항시는 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가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에서 스마트 제조 포럼을 개최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제조 포럼은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도입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스마트 제조 기술과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고, 성공 도입 사례를 공유하는 등 전문가와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24일에 열린 개막행사에는 중소기업정장을 역임한 주영섭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가 '대전환 시대의 패러다임 혁명과 스마트 제조 혁신'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진행했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안전 기여자로 유명한 다비드 로메로 멕시코 몬테레이 공과대학교 교수는 '인간 중심 스마트 제조'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이어 갔다. 패널 토론 세션에서는 '제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전국의 로봇 업계 대표들이 열린 토론을 펼쳤고, 앞서 스마트 제조 기술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업체의 대표들이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번 스마트 제조 포럼의 둘째 날인 25일에는 전국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에 모여 센터 소개와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킹 시간을 가진다.

포항시는 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가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에서 스마트 제조 포럼을 개최 한다.

25일 오후에는 센터 내 구축된 UV측정장비 등 56종의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스마트 데이터·스마트 공정·스마트 품질 분야에 대한 운영 과정을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는 교육과 컨설팅으로 중소기업이 스마트 제조 기술 도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며 "SME Day, SME Week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으로 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하며 포항형 디지털 산업 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는 Apple이 경 상북도·포항시·포스텍과 협력해 세계 최초로 만든 제조업 특화 R&D 지원센터이며, 스마트 제조 관련 최신 장비를 활용해 중소 제조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SME Week라는 심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스마트 제조에 관한 교육과 일대일 컨설팅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영양군 '2024 수비면 능이축제' 개최 한다

내달 12·13일 수비면 체육공원
축제기간 각종 체험 부스 운영



영양군은 10월 12일에서 13일, 2일간 수비면 체육공원 일원에서 '2024 수비면 능이축제'를 개최 한다.

특산물과 문화·관광자원을 주제로 마을이 주관으로 시행하는 능이축제는 자연의 선물이자 불리는 '능이버섯'을 산지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능이버섯은 깊은 산중 공기가 좋은 곳에서 3년에 한 번 정도만 채취가 가능한 귀한 버섯으로 버섯 중의 으뜸으로 꼽힌다. 오죽하면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제1능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능이버섯은 갈매기 모양의 다갈색 버섯으로 건조하면 거의 흑색이 되면서 강한 향기를 낸다. 가을에 참나무 등 활엽수림 안의 땅 위에서 무리지어 자라나 울로 자생하는 풀과 꽃과 흙의 향기를 품은 향을 가져 향버섯이라고도 불리는 그야말로 자연의 내음, 바로 능이의 건강한 향을 머금은 버섯이다. 축제기간 동안 몸에 좋고 향도 좋은 능이버섯 구매 외에도 축제공연, 영양만점 디제인, 이벤트게임, 맥주빨리 마시기, 능이라면 나눔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방문객의 눈, 코, 입을 즐겁게 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마을축제로 시작한 능이버섯 축제가 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라며 "올해 축제는 더 다양한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마련했으니 꼭 방문하셔서 능이축제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윤동 기자



청송 여성농업인 교류의 장

청송군은 '제3회 (사)한국여성농업인 청송군연합회 명랑운동회'가 지난 20일 청송군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여성농업인 청송군연합회(회장 최상희)가 주최·주관하고, 각 읍면 회원과 가족, 내빈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명랑운동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원들과 내빈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노래자랑과 경품 추첨 등 웃음 넘치는 화합한마당으로 마무리됐다.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여농 연합회 이사 및 8개 읍면 회장님들이 모은 '저출생 극복 기부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를 준비한 최상희 회장은 "기후 변화, 인건비 및 농자재비 상승 등 농업과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한여농은 설립 이후 여성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지금은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역 농업의 혁신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병문 기자

영천시, 지역축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회의

보현산별빛축제 안전 심의
교통통제·주차대책 등 논의

영천시는 지난 23일 김진현 부시장 주재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4회 영천 청년의 날 기념행사', '제50회 영천문화예술행사', '제21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영천소방서, 영천경찰서, 한전 영천지

사, 영천교육지원청 등 관내 안전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유형별 안전대책, 비상시 조치계획, 교통통제 및 주차대책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전문적인 입장에서 안전관리 분야 전반에 대해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진현 부시장은 "가을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축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라며

"빈틈없는 축제 준비를 통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축제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4회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오는 28일 영천강변공원 일원에서, 제50회 영천문화예술행사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영천강변공원에서 열린다.

그리고 제21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보현산 천문과학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최은하 기자

울진군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영화 관람

27가정 80여명 가족 참여
'안녕, 할부지' 다큐멘터리

울진군은 울진군가족센터가 지난 20일 울진 작은영화관에서 9월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영화 관람 데이'를 진행했다.

가족사랑의 날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날로 바쁜 주중에 하루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실천이 가족사랑의 첫걸음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번 가족사랑의 날은 울진 작은영화관에서 '안녕, 할부지' 푸바오 가족의 다큐멘

터리 영화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금요일 저녁 시간 부부, 부모-자녀 등 27가정 80여명의 가족이 참여해 가족사랑의 날을 함께 했다.

울진군가족센터는 지난 5월 가족 뮤지컬을 시작으로 바람떡 만들기, 국립해양과학관 연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 등, 울진 관내 거주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가치를 알리고,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정수 기자

영덕군, 평생교육지도자 양성 개강

회원 및 수강생 30여 명 대상
양홍균 글로벌라이프대학장 초빙

영덕군은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개강식을 영덕군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회원과 수강생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 23일 영덕향교에서 개최했다.

개강식엔 평생교육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및 계획에 관해 안내와 함께 대구대학교 양홍균 글로벌라이프대학장을 초빙해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지도자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가 펼쳐졌다.

올해로 8기에 접어든 영덕군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은 이번 개강을 시작으로 11월 12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6시 30분에 진행하며, 과정 수료 이후에는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진행과 평생교육지도 봉사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김광열 영덕군수는 수강생을 향해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훌륭히 마친 후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학습자로서, 나아가 배움의 즐거움을 전파하는 지도자로서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의 전도사가 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주역이 되시길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조여은 기자

경산 구미 김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경북 유산·문화 반영된 新주거모델 만든다”

고령 천년건축 시범마을 기공식
임대주택 25동 70호 규모 건축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사업



고령군은 23일 다산면 벌지리 63번지 일원에서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원화로타리클럽 봉사 활동

국제로타리 3700지구 청도로타리클럽과 원화로타리클럽은 지난 21일 각북면 오산리 어르신들을 위해 9월 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청도로타리클럽과 원화로타리클럽 회원 40여 명이 참여하여 경로당 청소 및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로 자장면을 대접했다. 청도로타리클럽은 봉사단체로 매월 정기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로회원을 위한 자장면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환경 정화 활동,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활동,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백한상 청도로타리클럽 회장은 “가장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저희 클럽의 슬로건을 가슴에 다집하며 매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저 또한 오늘 깨끗해진 경로당과 자장면을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뿌듯하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우수태 각북면장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각북면 오산리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진행해준 청도로타리클럽과 원화로타리클럽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김천시 현장전입반 운영

김천시는 지난 23일 대신동행정복지센터와 함께 2학기 개강을 맞은 경북보건대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현장전입반을 운영했다.

김천시는 찾아가는 현장전입반 운영을 통해 김천시에 거주하면서 주소가 관외지역으로 돼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김천시 전입혜택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했다.

이날 김천시는 전입에 따른 각종 혜택을 정리한 2024년 김천 생활 가이드북을 배부하며 실거주 미전입 학생들의 전입신고를 독려했다. 김천시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학생의 경우 △전입 지원금 20만 원 △기숙사비 지원금 학기당 30만 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김천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관내 대학생에게 학내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김천시의 인구 증가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현장전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김천시 인구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고령군은 23일 다산면 벌지리 63번지 일원에서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남철 군수, 이철호 군의회 의장, 노성환 도의원을 비롯한 군의원,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인구정책 과장의 사업설명, 기념사 및 축사, 기공 세레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경상북도는 인구감소로 쇠퇴하는 지역의 위기 앞에서 경상북도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하회마을처럼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향숙적 가치의 도시 모델 구축을 제안하여 시범사업으로 8개 시·군을 선정하여 도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군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알리는 첫 삽을 떴다.

고령군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주거단지를 조성해 도시인재·청년들이 찾아오는 지방시대 전환의 상징적인 장소로 거듭나고자 총 사업비 230여억원을 들여 면적 25,370㎡ 부지에 임대주택 25동 70호(공동주택 8동 44호, 단독주택 17동 26호), 커뮤니티센터, 테라피농장, 체육시설, 돌봄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2024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027

칠곡군 장난감 기부... 아프리카까지 확산

칠곡군아이누리장난감 활동 새마을재단, 외국 기부 계획

경북 칠곡군에서 불라일옌 장난감 기부 바람이 들불처럼 번져 라오스에 이어 아프리카까지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칠곡군아이누리장난감 도서관은 지난해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각계각층의 주민들로부터 기부받은 장난감 600여 점을 비롯해 의류와 신발 등을 라오스 농사마을에 전달했다. 칠곡군이 새마을세계화 사업을 펼치고 있는 농사마을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통해 꿈과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라오스 어린이를 위해 10대 청소년들은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장난감을 내놓았고,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이 애지중지 아꼈던 장난감을 기부했다. 자동차와 인형에서부터 뽀로로와 타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캐릭터 장난감은 물론 최근 아이들로부터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티빙짱 장난감까지



포함됐다.

칠곡군은 물론 서울과 부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장난감 기부에 동참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장난감 기부와 함께 라오스와 아프리카에 보낼 장난감 포장과 세척 봉사에도 주민들의 두 손을 겹고 나섰다. 북삼고 이세진 교사와 학생 6명은 지난 23일 칠곡군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을 찾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모은 장난감을 전달하고 인체에 해가 없는 곡물 발효 알코올로 장난감을 세척했다. 새마을재단은 장난감이 현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배편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해 장난감

으로써 미래에도 유효한 미래지향성을 가지면서 경상북도의 유산과 문화가 반영된 삶의 터전이자 마을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주거모델로 거듭날 것이다. 고령군은 “오늘 기공식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

한 경상북도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역의 미래를 이끌고 갈 청년·귀농인들에게 양질의 정주 여건을 지원하고, 지역의 일자리와 함께 하는 청년 정착의 성공 사례로 순환 발전시켜 경상북도의 대표 주거모델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청도군 '농촌서 살아보기' 운영

청도군은 23일부터 1개월간 매진면 당호리마을에서 '농촌서 살아보기' 2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촌서 살아보기'는 영농 체험과 지역 농특산물 수확, 마을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농촌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주거지 탐색과 지역 특성에 맞는 귀농귀촌 계획을 수립하여 청도군 맞춤형 농촌 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

이번 농촌서 살아보기 2기 참여자는 도시민 희망자 5명을 선정, 영농체험, 마을 탐방, 귀농귀촌 정책교육 및 재능기부 활동 등을 진행하면서 청도군의 농촌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촌서 살아보기’를 통해 청도군의 자연경관과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청도군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생활의 실질적인 모습을 이해하고 청도군 정착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구미, 경북도민생활대축전 3일간 개최

22개 시·군 10000여명 참여 지역 경제 활력 효과 기대

구미시가 제34회 경북도민생활대축전으로 뜨거워진다.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경북 도내 22개 시·군에서 약 10000명의 선수와 도민들이 참여해 구미를 스포츠 열기로 가득 채운다. 박정희체육관을 비롯해 구미 전역에서 23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지며, 도민들의 열띤 경쟁과 화합이 기대된다. 생활체육은 단순한 운동과

넘어 도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며, 건강 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대축전은 이러한 생활체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으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간의 준비를 마쳤다. 경기장 시설 점검과 안전점검을 완료했으며, 응급의료 인력과 안전 요원을 배치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교통 통제와 주차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대회 진행의 원활함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박정희체육관 주변에는 경기 외에도 다양한 체

험 부스와 구미시 홍보 부스가 운영된다. 한국, 솔라, 문방구 뷔기 등 이색적인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체험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구미시 체육회 후원 구미시랑상품권이 제공된다. 상품권은 구미 지역 내 농특산물과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개최식은 9월 27일 오후 4시 50분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다. 개최식에서는 경북 출신 가수 박상현, 주미, 홍자, 황준, 신유가 축하 무대를 꾸밀 예정이며, 생활체육 픽토그램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로 대회의 흥미를 더할 계획이다. 송영주 기자

성주-경일대, 평생교육 MOU

지난 23일, 성주군은 경일대학교와 지역의 평생 교육 기반 조성 및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재직자 및 군민 평생교육 기반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병환 성주군수와 정현태 총장을 비롯해 여청환 학생회장 등 성주캠퍼스 학생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은 협동수업 등 경북미래라이프대학 정규 학위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 성주군 내 기업 재직자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 지방교육 격차 해소 위한 공동노력, 성주군의 우수한 인재 육성,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성주군은 지난 2021년 12월 계명문화대학교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향후 2025년 본격 추진 예정인 RISE사업 등과 연계하여, 경일대학교·대구대학교·계명문화대학교 등 지역의 대학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고등·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관내 재직자들과 군민들이 양질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재훈 기자

경산, 새로운 마스코트 선호도 조사 나서

시 누리집 배너 등 통해 설문

경산시는 시를 상징하는 새로운 스토리와 세계관을 담은 상징물(마스코트) 디자인 선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일간 선호도 조사를 실시

한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경산시 홈페이지 배너 또는 별도 홍보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조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 원 상당의 음료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개된 마스코트 디자인 후보안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안인 ‘별난 백고미’는 경산 지형을 본

든 사람(인) 형태를 통해 시민 중심의 경산을 상징하며, 미래 지구를 수호하는 북극곰을 의인화한 캐릭터로 경산시의 청량감과 시원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두 번째 안인 ‘유니&코니’는 경산의 정년 창업과 미래 유니콘 기업과 함께 임당 유니콘파크를 배경으로 한 마스코트로 경산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상징하며, 유니콘을 친구 같은 이미지로 표현해 젊고 친근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月刊 정치와사람

11월 11일
첫 만남!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 대구광역일보가
조만간 월간 정치와사람을 발간,
독자 곁으로 다가갑니다.